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고양문화재단

아람누리과 어울림누리의 브랜드화를 통한 특성화 운영

2008-07-11 10:03:48

고양문화재단이 제 모습을 찾아간다. “실속 없이 몸집만 키웠다”, “방만한 예산 집행으로 돈 먹는 하마다” 등등.. 술한 구설에 올랐던 고양 문화재단이 점차, 운영은 정상 궤도에 들어서고 조직이 효율적으로 재편되었는가 하면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 있게 확대 강화되고 있다.



◇ 조석준 대표이사 ©고양 문화재단

지난 3월 10일 공연장운영 전문가인 前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조석준(趙錫準, 55세)씨가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취임과 함께 제3기 도약기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조석준 대표이사는 취임과 더불어 ‘재단 본연의 임무인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익성을 우선시하는 경영’, ‘시민친화적인 문화 사업으로 지역문화창달’, ‘아람누리. 어울림누리의 브랜드화’ 육성을 경영방침으로 밝혔다. 취임이후 100여일이 지난 지금 재단은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효율성을 높인 기능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마쳤고 예년보다 빠른 차기년도 사업계획으로 숨가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조 대표가 취임당시 밝힌 것처럼 재단은 향후 공익성과 수익성이 충돌할 경우 공익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재단을 운영할 것이다. 이는 공익성을 지닌 문화재단이 오로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영리목적으로 수익성만을 추구하지 않고 재단 본연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적절히 균형 있게 조화시킨다는 의미이다.

조석준 대표이사가 취임이후 가장 강조를 한 운영방침 중의 하나가 바로 아람누리과 어울림누리의 브랜드화를 통한 특성화 운영이다. 재단은 창립 이래 4년간의 노하우와 고양어울림누리과 고양아람누리를 개관했던 값진 경험을 토대로 2008년부터 본격적인 양대누리 특성화 방안에 돌입했다.

2007년 5월 고양아람누리의 개관으로 고양시는 인구 약100만의 도시에 고양아람누리과 고양어울림누리라는 거대한 공연단지 2개와 총 7개의 실내외 공연장, 2개의 미술관을 갖춘 국내 최고의 문화도시가 되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2개 공연단지와 7개 공연장, 2개의 미술관을 어떤 방식으로 서로 중복되지 않고 각각의 개성과 용도가 반영된 특성화 운영을 하는가이다. 또 이런 특성화



가 성공하여야 재단 내 어느 공연장과 미술 ◇ 고양 아람누리 야경 ©고양 문화재단
관도 실패하지 않고 전체 공간들과 조화를
이뤄 시민들의 문화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고양문화재단은 2008년 6월 재단의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조직개편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기존 아람누리, 어울림누리라는 공간중심적인 조직구조에서 양대 누리의 동일 업무 부서를 과감히 통폐합하는 기능중심적인 조직개편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람누리본부 어울림누리본부의 구성이 적절하게 합쳐졌고 양 누리의 공연기획팀과 공연장운영 팀이 통합되고 시설관리팀, 무대기술팀도 융통성 있게 순환이 가능한 1,2팀으로 변경하여 조직의 유연성을 추구하였다. 기존 공간 중심적 조직에서는 동일업무부서간 업무상 반복과 중첩이 적지 않았지만 금번 개편으로 말미암아 조직구조는 더욱 효율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체 상시감사기능과 고객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자 감사역과 고객지원팀을 신설하였다. 또 공연사업이외의 사업부서들을 한 본부로 묶어 문화사업 본부를 탄생시켰으며 본부 안에 시민축제사업과 문화연구조사 기능이 강화된 문화사업 팀을 새롭게 발족시켰다. 문화사업 본부는 기존의 수익사업을 담당하던 전략사업단이 새롭게 변화된 것으로서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우선시하는 재단의 경영방향이 반영된 것이다. 이로써 재단은 수익성보다 재단 고유 본연의 목적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 고양 어울림누리 전경 ©고양 문화재단

조직개편으로 재단은 점차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재단의 향후 중장기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현재 각 부서는 보다 치밀하고 세심한 사업 준비를 위하여 2009년 사업계획을 6월중에 일단락 짓고 장기적인 실행계획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데일리안 경기 강영한 기자]